

황금연휴, 익산서동축제로 초대

내달 3~6일 개최... 무왕행차 퍼레이드·체험·공연·먹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 '2025 익산서동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앙체육공원과 서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익산만의 백제 이야기를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풀어낸다.

축제는 △무왕행차 퍼레이드(왕의 탄생) △무왕이 되어라 RPG(금빛 서동) △서동별빛정원(사랑의 연) △무왕의 도장(무왕의 꿈)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백제 무왕의 생애와 사랑, 꿈을 담은 서사를 선보인다.

개막일인 3일에는 익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함께, 백제 30대 무왕의 행차를 재현한 '무왕행차 퍼레이드'가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퍼레이드는 △웅의 탄생 △도전과 시련 △웅기와 성장 △왕의 즉위 △



무왕의 꿈 등으로 구성된 공연형 퍼레이드로, 무왕의 서사를 극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가수 KCM과 박세욱, 박주희, 장영우, 첼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장에 흥을 더

한다.

4~6일 서동공원 일원에서는 백제 문화체험과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서동에술터와 백제 옷 입기 체험, 코끼리 열차, 어린이 마술쇼·풍선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휴 내내 활기를 더한다.

먹거리와 휴식 공간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지역 대표 브랜드인 다사랑 치킨과 세븐브로이가 함께 선보이는 치킨과 맥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코아바이오'의 건강 음료 콤보 차 제공 등 다채로운 즐거움이 준비돼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동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백제 무왕의 역사적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익산만의 대표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역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갑토리' 디자인·상표 출원

갑오징어 브랜드화·캐릭터 개발 등 홍보 전략적 추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갑오징어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갑토리'(이하 갑토리)를 개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시는 캐릭터 '갑토리'의 친근함을 통해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갑토리' 디자인·상표 출원도 진행했다. 이는 해당 캐릭터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기 위해서다.

군산 갑오징어 위판량은 전국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리당 단가도 일반 수산물의 평균 2.8배로 고부가가치 어종이다. 시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인 '갑오징어' 자원증대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 중이다.

특히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군산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육성하고자 산란 서식장 조성과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캐릭터 개발 및 새만금마라톤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갑오징어를 지역 대표 어종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갑토리' 활용 홍보물 제작 △각종 축제 등에 홍보 및 판매 부스 운영 지속 등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과 함께 해당 어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캐릭터 개발이 군산 갑오징어를 널리 알리고, 지역 수산업과 관광 활성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K-관광섬 '말도' 모니터 투어 성황리에 종료

군산시, 해양 관광자원 발굴·관광 활성화 위해 투어 진행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한 '전북 해양관광 트레킹 모니터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해양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부안 위도와 군산 말도에서 1박 2일 동안 트레킹, 트레킹 서포터즈와 언론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전북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6개 기관(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군산의 해양관광자원과 K-관광섬의 트레킹 코스를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

획이다

모니터 투어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부안 위도에서 시작해 군산 말도에서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군산 K-관광섬의 끝섬인 말도에서 진행된 해양 트레킹이었다.

말도 선착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말도 습곡구조를 살펴보고 습곡구조의 생성과정과 보존 가치를 배우고 군산의 지질공원 10개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큰 등대인 말도 등대에서 도착한 참가자들은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에 감탄하며, 서해의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울지 몰랐냐며 놀라움을 보였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강한 해풍을 견디며 암벽에 뿌리를 내린 신비로운 말도 천년송과 코끼리 바위를 둘러보고, 고릴라의 옆모습을 닮은 바위 등을 보며 말도의 아름다움을 흠뻑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군산 해양관광 자원의 매력과 올해 개통될 K-관광섬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군산시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과 꽃바람정원 활짝 피우다

시민 210여명 신흥공원에 꽃 심어... 도심 속 정원 가꾸기 '큰 호응'

익산시 신흥공원 꽃바람정원이 봄의 싱그러움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지난 25일 신흥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꽃바람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꽃바람정원 만들기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시민들이 정원을 가꾸며 도심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유치원생 등 15팀 21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000㎡ 규모의 정원에 델라포디움, 백일홍, 안젤로니아 등 계절꽃 6종 3만본을 심으며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했

다.

이와 함께 마가렛, 메리골드 등 익산시가 조성한 다양한 계절꽃 단지와 사생활원 장소가 설치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했다.

한 참가자는 "직접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니 도시에서도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꽃바람정원이 시민들의 일상에 힘을 선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익산을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녹색정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 통합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최재현 의원)을 채택했다.

강경숙 부의장은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